

한국수어사전 편찬 방향을 위한 제언

이준우*

강남대학교

남기현**

강남대학교

조준모***

한동대학교

《요약》

본고의 목적은 자연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담은 한국수어사전의 편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수어사전이 되기 위해 표제어와 사전적 정보라는 두 가지 논점을 다룬다. 먼저, 한국수어사전에서 표제어의 문제이다. 표제어의 수집 및 선정이 한국어 중심에서 한국수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표제어의 표기문체에 있어서는 한국수어를 위한 대중적인 표기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활용된 한국어 주석은 한국수어 어휘에 해당하는 참조의 역할을 할 뿐 한국수어 어휘의 표제어가 아님을 인식하고 한국수어에 대응하는 보다 적절한 한국어 주석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적 정보에는 의미적, 화용적, 문법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보는 뜻풀이와 용례를 통해 폭넓은 사전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아가 수어 고유의 문법정보가 충실히 다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수어의 문법정보에는 음성-청각적 언어인 한국어와 다른 시각-수지적 언어의 특징인 3차원적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동사에 따른 위치와 방향 정보, 폼사, 비수지 자질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한국수어사전 안에서 적절히 그리고 충실히 기술되기 위해 한국수어 말뭉치 자료에 기초한 사전 편찬 작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한국수어사전이 진정한 수어사전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한국수어의 자연언어로서의 정당성과 한국어로부터 독립된 언어 정체성을 한국 사회 전반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수어사전, 표제어, 뜻풀이, 용례, 문법정보

* 제 1저자

** 교신저자 (ksling@hanmail.net)

*** 공동저자

1. 서론

수어사전의 편찬은 농사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어를 사용하는 농사회를 독립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닌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Mckee & Mckee, 2013: 502). 그러므로 어떤 수어가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수어사전의 편찬은 그 수어가 독립된 언어임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수어는 이미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2016년 2월 3일)으로 한국 농인들의 제1언어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국수어가 독립된 자연언어인 사실이 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수어사전¹⁾의 편찬 방향은 한국수어가 자연언어로서 갖추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보다 적합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한국수어 관련 사전들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이사전에서 웹사전으로 발전해왔다. 종이사전은 표준수화사전(1982)을 시작으로 한글식 표준 수화(1991), 최신판 표준수화사전(1993), 한국수화사전(2005b)의 순서로 발전해왔으며, 웹사전으로는 한국복지대학교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용 한국어-수화 동영상 사전 개발” 연구의 결과물인 한국어-수화사전과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하여 2016년부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이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종이사전은 물론 웹사전을 대표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을 살펴보면 2000년 문화관광부에서 ‘한국표준수화규범’을 제정하기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한국수화사전(2005b)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인 추가 및 보완 작업을 거쳐 한국수화사전 별책과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2007~2012)을 각 분야별로 발간하였다.

이상의 결과물들을 종합하여 2016년 4월 웹상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상생활 수어’와 ‘전문용어 수어’, ‘문화정보 수어’로 구분

1) 본고에서 제안하는 한국수어사전의 성격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한국수어 관련 사전들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 혼동이 없어야 한다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수어사전이 취할 수 있는 사전의 세 가지 형태인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수어-한국수어 사전’중에서 한국수어 표기 문제로 인해 일언어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한국수어 어휘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담은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수어-한국수어 사전’구축을 목표로 두고 논의하였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국어-국어 사전’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한국수어사전’이라는 명칭만으로도 이 사전이 한국수어에 대한 사전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향후 한국수어사전이 편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웹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수어사전과 본고에서 제안하는 수어 사전을 구분하여 전자를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으로 후자를 ‘한국수어사전’이라 칭하였다.

된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이 제공됨으로써 사전 이용자들이 다양한 수어표현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4월 이후 웹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2017)은 기존 사전과 검색 방법에서 차이를 가진다. 기존 사전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있는 한국어 단어를 검색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어 단어를 찾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특정 수어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이미 알고 있어야만 검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수어 어휘 자체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반면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2017)은 수어 어휘를 한국어를 통하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의 뜻을 알기 위해 옥편에서 부수로 해당 단어를 찾듯이 수어 단어를 구성하는 수어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어가 지닌 언어적 특성에 기초하여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서 수형으로 찾기로 검색하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손 모양(수형)’, ‘손 위치(수위)’, ‘한손/두손’, ‘같은 모양/다른 모양’으로 찾을 수 있다. 최근 개발된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2017)은 그 검색 기능으로 수형과 수위 그리고 한손/양손의 자질을 사용한다.²⁾ 한글로 검색하는 방식과 함께 수어소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국어와 한국수어 양방향으로 검색이 가능한 한국수어 웹사전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전의 유형으로 볼 때 한국수어사전은 정규 사전과 기술 사전을 지향한다. 두 가지 지향점은 한국어에 근거한 사전이 아닌 한국수어에 근거한 사전 편찬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귀결된다. 사전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수어의 전체 어휘를 등재한 정규 사전이어야 한다. 특정한 어휘들을 집중적으로 기술하는 특수 사전의 편찬을 통해 사전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한국수어의 어휘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한국수어의 수어소가 수형, 수위, 한 손/두 손으로 국한되어 있는 듯한 인식을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음을 밝힌다. 한국수어에 관련된 모든 수어소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언어학적 질문과 한국수어 웹사전의 어휘 검색으로 가장 적절히 사용되는 수어소는 무엇인가라는 사전 활용적 질문은 서로 독립된 질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어에서 비수지 신호와 수동이 수어소에 속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반드시 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사전활용적 관점에서는 비수지 신호와 수동, 더 나아가 수향 등의 자질이 한국수어사전 검색에 용이한가는 기능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사전 검색은 사전 이용자의 효율성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구축되어 활용도가 높게 평가된 외국수어 웹사전을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언어학적 수어소와 사전의 검색자질의 독립적인 관계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외국수어 웹사전 중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웹 수어사전은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2017)과 마찬가지로 수형, 수위, 한 손/두 손만을 기본적인 검색자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반면, 독일수어 웹 사전과 핀란드수어 웹 사전은 이 세 가지 검색자질 이외의 몇 가지 자질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핀란드수어는 추가적으로 입 모양과 수동을 활용하고, 독일수어는 수동과 수향을 활용한다. 그러나 검색을 위하여 이 모든 검색자질/수어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 한국수어사전은 실제 농인들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용법을 잘 반영하는 기술 사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한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어휘 목록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탈피하여 한국수어에서 어휘와 표현들을 발굴하여 그 목록을 정리하고 그것들의 적합한 한국어 대역어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술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수어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농인들의 실제 언어자료에서 어휘들의 의미와 용법을 규명해가야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볼 때 한국수어사전은 농사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한국수어 어휘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실증적인 자료인 한국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표제어 수집 및 선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수어사전에서 표제어는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어야 하며 한국어의 대응어 목록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화 작업으로 인해 한국수어 어휘의 다양하고 풍부한 특징들을 놓칠 수 있음을 알고 음성언어 중심적 사고에서 수어 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수어사전은 독립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를 기술한 사전적 정보를 충실히 담아야 한다. 한국어 어휘에 관한 의미 및 문법정보가 아닌 한국수어 어휘에 관한 의미와 문법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수어사전의 발전적인 편찬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사전의 표제어는 무엇이며 표제어 선정 및 수집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한국수어사전의 적절한 사전적 정보는 무엇인가?

II. 한국수어사전 편찬의 발전 방향

수어 사전편찬자들은 음성언어 사전편찬자들이 겪지 않을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한다(Zwitserlood, 2010: 444-5). 첫 번째 도전은 수어의 문자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몇 가지 수어 표기법들이 개발되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일반적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표기법 대부분은 사전에서 수어 단어를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는 수어 어휘의 의미와 문법적 특징을 추론할 수 있는 언어적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음성언어와 다른 특성들, 즉 자연수어가 가진 복잡한 구조이다. 마지막은 비전문가들이 부적절하게 편찬한 수어사전들의 전통이다.

과거 한국수어 관련 사전들이 편찬되었는데 현재 웹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으로 다른 사전들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표제어의 문제와 사전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사전 편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1. 표제어

1) 한국수어 표제어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수어에 관한 언어적 정보를 기술한 사전이므로 표제어는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은 종이사전에서 웹사전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수어가 표제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발견된다. 일례로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서 ‘그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한국어 어휘의 여러 의미에 맞는 한국수어 어휘들이 검색된다. 사전에서 검색된 [끝+끝]을 한국수어의 어휘로 보기는 어렵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산출한 것은 특정한 문맥 속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끝이야’, ‘그만해’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끝+끝]은 한국수어에서 복합어도 아니고 사전에 표제어로 들어갈 단위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수어 어휘에서 표제어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표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를 보면 표제어 ‘그만’의 뜻풀이는 한국수어 단어의 뜻풀이가 아닌 한국어 단어의 뜻풀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원어 정보는 수어 동작에 관한 정보이다.

<표 1>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표제어 ‘그만’의 뜻풀이와 원어 정보

표제어	뜻풀이	원어 정보(바탕 그림)
그만	[부사] 더할 나위 없이 좋음을 나타내는 말.	아주 좋음을 나타내는 동작
그만	[부사] 그 정도까지만.	손을 끊는 동작<斷絶>
그만	[부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천천히 뒤바뀌는 동작
그만	[부사] 그 정도까지만.	끝+끝
그만	[부사] 그 정도까지만.	막다른데 이르는 동작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의 표제어가 한국수어인가에 의문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증거는 한국어 문법 형태소인 조사, 어미, 접사가 등재된 점이다. 일상생활 수어의 총 12,547개 표제어 중에서 접사는 46개, 조사는 34개, 어미는 17개이다. 아래 “-꾼”처럼 표제어는 동일하지만 뜻이 다른 경우 표제어의 예는 하나만 제시하였고 전체 개수는 모두 합한 수로 제시하였다(<표 2> 참조).

- (1) -꾼: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2) -꾼: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표 2>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접사, 조사, 어미의 예와 개수

품사	표제어 예	개수
접사	-간, -관, -광, -국, -권, -꾼, -끼리, -님, -답다, -도, -들, -민, -비, -사, -성, -스럽다 -씩, -애, -어, -장, -적, -전, -증, -쯤, -처, -청, -탕, -학, 고, 당, 만-, 문, 미-, 반-, 부, 분, 사, 어치, 외, 이	46개
조사	-야, 과, 까지, 께, 더러, 도, 든지, 량, 로, 마다, 만, 밖에, 보다, 부터, 뿐, 예, 에게, 에서, 와, 으로, 의, 이나, 이니까, 이다, 이라고, 처럼, 커녕, 한테	34개
어미	-버니까, -버니다, -버시다, -다가, -던, -리, -면, -면서, -았(-었), -자, -지만, 다오	17개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독립된 언어이므로 두 언어 사이에는 어휘적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어 ‘-꾼’의 의미를 농인들에게 이해되도록 한국수어로 의역하여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접사는 한국수어 어휘항목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수어에 없는 어휘가 사전에 등재되어있다는 것은 사전의 표제어 선정의 중심이 한국수어 어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수어 어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와 등과 같은 한국수어 어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표제어 표기문제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어와 한국수어 두 언어로 기술된 이언어 사전이다. 한국수어를 위한 대중적인 문자체계가 없어 한국수어 자체의 표기법으로 표기할 수 없다. 사전에서 문자 없이 단어를 검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빌려와 자모순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의 표제어가 한국어인가 아니면 한국수어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을 위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손천식, 엄미숙, 2004: 275).

수화표제어의 의미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어의 자모순을 따라 배열하고 국어어휘를 표제어로 하고 대응하는 수화어휘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수화표제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전편찬의 중점은 국어표제어가 아닌 수화어휘에 두고 있다. 수화어휘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충실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이다. 그런 면에서 수화표제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수화사전(2005b)의 표제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표제어를 한국어로 표기하여 마치 한국어 표제어라고 볼 수 있지만 위 사전편찬의 기본원칙은 한국수어를 표제어로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은 실제로 한국수어사전이 아니라 한국어-한국수어사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³⁾ 결국 한국수어사전으로 명명한 것은 오류라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으로 한국어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으로의 의도가 명백했었다면 한국어에 해당하는 한국수어 단어를 하나로만 지정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한-영 사전이나 영-한 사전의 경우 표제어에 해당하는 외국어 어휘를 하나로만 지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수어표제어를 X라고 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Y라고 한다면 한국수화사전(2005b)에서 X가 표제어이고 Y는 그 표제어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는 타언어, 즉 한국어라는 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Y가 X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언어와 언어 사이에 어휘적 일대일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Y를 X의 의미라고 하기보다 X의 주석(gloss)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겠다. 여기서 주석은 X의 의미에 대한 추상적인 표상(an abstract representation of the meaning of X)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외국 수어사전의 표제어 표기와 배열은 음성언어를 빌려와 표기하는 방법 대신 참조번호와 수형을 이용한 것이 있다. 영국수어/영어사전(Brien, 1992)이 그 예이다. 영국수어/영어사전(1992)은 ‘영국수어섹션’과 ‘영어섹션(의미를 안내하는)’으로 나뉘어져 있다. ‘영국수어섹션’은 영국수어가 독립적인 언어임을 강조하여 영어 표기 없이 수형과 사진, 참조번호 그리고 영국수어 학자들이 개발한 표기법으로 영국수어 어휘를 제시하였다. 참조번호는 ‘영국수어섹션’과 ‘영어섹션(의미를 안내하는)’을 연결한다. 참조번호 옆에 있는 주석란에 있는 영어 단어와 구를 가지고 ‘영어섹션(의미를 안내하는)’에서 뜻풀이와 예문을 찾을 수 있다. 반대 방향으로 ‘영어섹션(의미를 안내하는)’에서 영어 주석과 참조번호를 확인한 후 ‘영국수어섹션’에서 해당 영국수어 단어를 찾을 수 있다.

3)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이상 살펴본 영국수어/영어사전(1992)에서 수어소와 자체 개발한 표기법으로 수어 표제어를 표기하고 검색에 이용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어사전에서 수어를 풀이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타언어로서 음성언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시각언어인 문자언어는 청인뿐만 아니라 농인들도 함께 공유하는 문화이다. 문자언어가 메타언어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되 공간 사용과 비수지 신호 등 문자언어로 전달하기 어려운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겠다.

3) 표제어 수집 및 선정 방법

과거 국외 수어사전의 전통적인 편찬 방식 또한 국내의 사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외 수어사전은 각국 수어를 둘러싼 음성언어 단어의 간단한 대응어(equivalents) 정도인 수어 단어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Johnston, 2003: 431). 더욱이 수어 단어들의 많은 부분은 수어사전의 저자들 혹은 후원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였다. 수어 자체가 대상이 되지 못하고 농아동과의 소통을 위해 혹은 농아동의 음성언어 학습을 위해 음성언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어 단어의 목록을 만들고자 했던 사전편찬의 주된 목적에 연유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음성언어 중심적 사고이며 자세이다. 음성언어를 학습하기 위하여 수어의 대응어를 찾고 마땅한 대응어가 없을 경우 단어를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어를 독립적인 언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는 마치 영-한/한-영 사전을 제작할 때 영어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대응어를 찾고 마땅한 한국어 대응어가 없을 경우 인위적으로 대응어를 만들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어 사전을 만들 때 어휘 선정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듯이 수어사전 편찬 시 어휘 선정 또한 수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어는 음성언어로부터 독립된 언어이다.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관계는 외국어의 관계이다. 사전의 어휘 선정에 있어서 어휘에 대응하는 외국어를 고려하여 하지 않는 것처럼 수어사전 어휘 선정에 있어서도 어휘에 대응하는 음성언어를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수어사전 편찬 시 표제어로 들어갈 수 있는 어휘의 수집과 선정 방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출판된 한국수어 관련 사전들과 이 사전들에서 표제어를 선정한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⁴⁾

표준수화사전(1982)은 총 수록 어휘가 5,494개로 최초로 국어 사전식 배열 방법을 채택하였다(한국표준수화 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3).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들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일어를

4)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외국수화사전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외국수화사전으로는 일본어 수화사전(2004), 한국어-스페인수화사전(2005), 한국어-미국수화사전(2008)이 있다.

중심으로 하여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들'을 수록하였다.

수화 사전(1983)과 한글식 표준 수화(1991), 그리고 최신판 표준수화사전(1993)은 맥을 같이 한다. 수화 사전(1983)에 수록되어 있는 5,966개 기호와 지문자 및 지숫자와 표준수화사전(1982)에 수록되어 있는 조사 및 어미의 기호들을 선정하여 표준화하고 수화의 기호와 지문자를 병용하는 원칙을 정하여 그 결과를 한글식 표준 수화(1991)로 발표하였다(김승국, 1993). 가장 마지막에 편찬된 최신판 표준수화사전(1993)의 초판은 수화 사전(1983)이며 지면의 한계 때문에 한글식 표준수화(1992)에 빠졌던 기호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한국어-수화 사전(2008-2011)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용 한국어-수화 동영상 사전 개발의 결과이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문헌을 분석하여 산출된 어휘목록과 한국수화사전(2005b)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를 고려하여 전문가협의를 거쳐 어휘를 선정하였다.

한국수화사전(2005a)은 교과서와 국어사전에서 수화 표현이 가능한 낱말들 9,818개를 수록하였다.

<표 3> 한국수어 관련 사전

번호	사전명	형태
1	표준수화사전(1982)	종이사전
2	수화 사전(1983)	종이사전
3	한글식 표준 수화(1991)	종이사전
4	최신판 표준수화사전(1993)	종이사전
5	한국수화어원 사전(2004)	종이사전
6	한국수화사전(2005a)	종이사전
7	한국수화사전(2005b)	종이사전
8	한국수화 문형사전(2007)	종이사전
9	한국어-수화 사전(2008-2011)	웹사전
10	한국수어사전(2016)	웹사전
11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2017)	웹사전

한국수화사전(2005b)의 표제어를 위한 자료의 출처는 아래 <표 4>와 같다(문화관광부, 한국농아인협회, 2004: 26-7). 표제어 수는 약 6,800개로 선정하였다. 이 종이사전을 웹사전인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으로 만들면서 일상생활 수어의 표제어 수는 대략 12,547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각국 수어사전의 표제어 수는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보다 많지 않다. 종이사전인 뉴질랜드 수어사전은 4,500개, 호주수어사전(1998)은 대략 5,500개, 영국수어/영어사전(1992)은 1,739개이다. 웹사전인 덴마크 웹 수어사전(<http://www.tegnsprog.dk>)은 2,000개, 호주수어 사인뱅크(<http://www.auslan.org.au>)는 4,669개의 수어 어휘를 등재하고 있다.

<표 4> 한국수화사전(2005b) 자료 출처

자료 출처	어휘 수	비율
수화책 22종	35,893	94.2%
농인의 직장파 운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	1,818	4.8%
추진위원 등이 추가하기를 요구한 어휘	390	1%
합계	35,893	100%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의 기반이 되는 한국수화사전(2005b)의 표제어들은 국내에서 출판된 수어책 22권에서 뽑은 35,893개 어휘와 여기에 직업 생활과 스포츠 용어를 추가하여 총 37,711개 어휘를 20개의 표제어 선정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이다(이준우 외, 2016: 286). 그러나 수어 교재는 농사회에서 사용되는 전체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수어 교재는 개인 저자의 주관에 의해 어휘가 선정되어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어휘의 수와 범위가 제한적이다.

표준수화사전(1982)부터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2017)에 이르기까지 한국수어 관련 사전들은 종이사전에서 웹사전으로 형태가 바뀌었고 등재어의 수도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사전의 표제어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전들은 ‘한국수어사전’ 혹은 ‘표준수화사전’이라 명명하였지만 국어 교과서와 국어사전의 국어 어휘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어휘를 일대일로 배열한 ‘한국어-한국수어 대역사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수어사전 편찬을 위해 수어 어휘의 자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전에 들어갈 수어 어휘는 농사회가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음성언어 화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사전에 등재된 어휘들 중에서 일부만 사용한다. 모르는 단어의 뜻이나 용법을 알기 위해 사전을 이용한다. 한국수어사전 편찬가는 한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어휘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농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수어 어휘들의 실질적인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

사전은 끊임없이 확대되는 다량의 자료에 대한 탐색과 수집을 전제로 한다(조남신, 2015: 53-4). 사전편찬자는 어떠한 원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자연언어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처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음성언어의 경우 사전 편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문어적 텍스트, 언어 보유자의 구어적 발화나 방언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다(조남신, 2015: 54). 수어사전은 과거 수어 학습용 교재에 있는 어휘들을 사전에 등재했던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이다. 한 가지 방법은 수어 말뭉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Zwitserslood, 2010: 455). 수어 말뭉치는 온라인 자료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의 많은 언어 사용자들을 포함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온라인 자료들에서 가져온 수어 단어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늘날 요구되는 보다 정교한 사전을 위해 필수적인 수어 단어들의 (미묘한) 의미와 기능들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음성언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자연수어 어휘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뉴질랜드 수어사전(<http://nzsl.vuw.ac.nz>) 편찬에서 참고할 수 있겠다. 뉴질랜드 수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농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이준우 외, 2016: 286-7). 대부분의 언어가 공유하는 의미 영역뿐만 아니라 농사회가 특징적으로 가진 의미 영역을 선정하여 목표 단어를 선정하고 목표 단어와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고 그것을 촬영한다. 촬영된 대화에서 관련 단어를 확인하고 이를 여러 지역의 농인 집단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확인 과정에서 의미와 활용, 그리고 변이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거쳐 사전에 들어갈 표제어를 선정한다. 이러한 수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추출된 표제어는 농인들의 직관에 따르며 농사회 문화에 근접한 어휘가 될 것이다. 특별히 관용어, 농 관련 어휘, 신조어 등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관용어는 농인들의 문화가 녹아 있는 고유한 어휘이며 용법을 모르고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정보와 화용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농 정체성, 농 문화 등의 농 관련 어휘들은 농 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생략되기 쉬운 부분이다. 또한 일반 사전과 마찬가지로 신조어는 주기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4) 표준화의 위험

사전 편찬의 목적은 사전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한국수어 관련 사전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편찬되었다(이준우 외, 2016: 253).

첫째, 농인과 청인 간의 혹은 농인과 농인 간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 어휘부를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한국수화사전(2005b)의 편찬 목적은 한국수어의 표준화이다. 표준화를 통해 농인들이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5b: ii).

그래서 수화 책을 만드는 사람마다 수화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책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선택되는 수화의 단어와 표현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책마다 많은 사람들 또는 일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달리 표현되는 단어를 가지게 되었다. 수화의 새로운, 표준화되지 않은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며, 따라서 달리 표현되는 단어 또한 많이 생겨날 것이다.

위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 7월 1일 수화 연구 및 수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22명으로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한국수화의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였다(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5b: ii).

둘째, 농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졌다. 외국 수어사전의 편찬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전의 후원자 혹은 편찬가들이 수어를 독립된 언어로 간주하든지 혹은 음성언어에 의존한 파생적인 의사소통 체계라고 간주하든지에 관계없이 수어의 어휘부를 표준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Johnston, 2003: 431). 사전편찬자는 수어 어휘의 표준화에 앞서 수어 어휘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언어학자와 교육자와 농인들은 수어 어휘의 주된 특징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방언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고해왔다(Johnston, 2003: 432). 국외 수어사전의 편찬에서 변이형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덴마크 웹 수어사전(<http://www.tegnsprog.dk>)은 지역어(regional sign)의 구분은 제공하지 않지만 어휘적 변이형은 표제어 기록이 따로 있으며 상호 참조 표시로 연결하였다. 이 사전에서 음운적 변이형과 어휘적 변이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일한 의미가 있는 수어 단어이지만 수형, 수위, 수동, 수향 중에서 하나의 요소만 다르면 서로의 음운적 변이형으로, 두 요소가 다르면 어휘적 변이형으로 보았다. 음운적 변이형은 동일한 표제어로 기록되는데 반해 어휘적 변이형은 서로 다른 표제어로 처리하였다.

호주수어사전(1998)은 5,500개 이상의 표제어들이 수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대략 1,500개는 음운적 변이형이고 대략 500개는 어휘적 변이형이다(Johnston, 2003: 460). 사전은 호주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고 알려져 있는지, 두 주된 방언 지역(남쪽과 북쪽) 중 하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주의 수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알고 있는지 등 수어 단어들의 분포를 제공한다. 또한 수어 단어가 신조어인지 외국에서 차용한 것인지 교육이나 통역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수어 사용자들에게 알려져 있으나 호주수어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나이든 수어 사용자들의 집단에서만 사용하거나 알려진 것인지, 한 때 퍼졌던 어휘인지 예전부터 사용되어왔을지라도 공동체의 일부에서 사용하거나

알려진 것인지, 어휘화되지 않은 경계선상에 있는 어휘인지 등을 밝힌다. 이러한 전통은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전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호주수어 사인뱅크(auslan.signbank)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호주수어 단어들의 분포를 지도에서 색으로 구별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분포 정보는 공동체의 피드백과 호주수어 문치로부터 나온 증거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에 노트를 통해 특정 어휘의 방언의 경우 어느 연령층이 사용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수어/영어사전(1992)은 노트(notes)라는 항목에서 지역어 정보를 밝혔다. 기호 *, †, ‡를 사용하여 영국 농공동체가 인식하는 지역어를 표시하였다. 이 기호로 표시되지 않은 어휘들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언어 공동체 어디에서나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지역어들은 한 지역에서보다 여러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다. 사전편찬자들은 ‘지역적’이라는 용어를 공동체 전체가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웹 수어사전(<http://suvi.viittomat.net.>)에는 언어 사용(usage)으로 고어, 신생어, 외설, 비공식어, 희귀어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언어의 표준화는 언어 공동체가 상당한 시간 동안 겪는 과정이다(Milroy & Milroy 1999: Johnston, 2003: 432쪽 재인용). 표준화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의미하므로 그 언어의 표준 형태의 선택(selection), 보급(diffusion), 유지(maintenance), 성문화(codification), 규범(prescription)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전은 수어의 표준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규범적인 역할이 아닌 농사회의 자연수어를 기록하고자 하는 기술(description) 사전을 편찬하려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Johnston(2003)의 지적처럼 사전 편찬의 동기를 수어 공동체의 언어 자원의 수집과 향후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 도구로 삼는다면 수어사전 편찬의 방향은 변화가 필요하다.

2. 사전적 정보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수어의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정보를 충실히 기술함으로 한국수어가 한국어의 하위범주가 아닌 독립적인 언어인 것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며 나아가 농인과 청인의 언어생활의 원칙으로써 참고할 수 있는 사전의 기능을 담당해야한다. 이러한 사전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수어사전이 갖추어야 사전적 정보를 아래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1) 뜻풀이

사전의 기본 구조는 어휘 항목인 표제어(올림말)와 그에 대한 정의(뜻풀이)이며,

사전 편찬의 가장 큰 가치는 정의에서 결정된다(권재일, 2004: 258).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2004: 260) ‘주어진 표제어에 대한 정의 부분에 수화 동작을 대응시킨 사전을 수화사전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어 동작은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가 되지 못한다. 수어 동작을 그림, 동영상, 한국어와 같은 그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한다고 하더라도 표제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려주는 발음 정보일 뿐이다.

국외 수어사전에서도 수어 뜻풀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전은 아니지만 교과목 용어를 위한 영국수어 용어집(British Sign Language Glossaries of Curriculum Terms)은 전문용어를 학습자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영국수어 뜻풀이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 대상은 영국수어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주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어린 농학생들이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의사소통 지원 근로자, 통역사, 부모들도 이 어휘집을 이용하고 있다. 80개의 수학 용어에서 시작하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과목에서 1,000개 이상의 단어들과 뜻풀이를 갖추게 되었다. 영국수어 용어집 프로젝트팀의 연구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어떤 용어가 영국수어로 존재하는지 영국 전역의 농 과학자들과 수학, 과학 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말 워크숍을 개최하여 영국수어를 수집하거나 어휘를 만든 후에 기존 용어들을 논의하여 뜻풀이를 작성한다. 개념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영국수어 조어법을 따라서 영국수어 단어를 만들어낸다. 일단 영국수어 단어들이 합의되면 영국수어로 뜻풀이를 만든다. 프로젝트팀은 교과서의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여 뜻풀이를 만든다. 좀 더 정확한 뜻풀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 뜻풀이를 재촬영하기도 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팀은 영국수어 뜻풀이를 영어로 번역한다.

영국수어 용어집 프로젝트는 영국수어 어휘에 대한 뜻풀이는 아니지만 전문용어를 농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영국수어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뜻풀이 번역 과정에서 참고할 만하다. 뜻풀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에 맞춘 뜻풀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에서는 한국수어 어휘의 의미 분석을 통한 뜻풀이 구축을 점차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수어 어휘의 다의어 연구를 통해 수어 어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용례

사전은 표제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뜻풀이와 함께 용례를 제공해야 한다. 용례는 언어학적인 복잡한 기술을 피하면서 형태적, 의미적, 통사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준우 외, 2016: 263).

뉴질랜드 웹 수어사전(<http://nzsl.vuw.ac.nz>)의 경우 영어로 'home'을 검색하면 화면 왼쪽 상단에 수형과 수위 정보, 그리고 주석으로써 영어와 마오리어, 그리고 품사 정보가 제공되며 바로 옆 오른쪽 상단에는 수어 단어가 그림으로 제시된다. 그 밑에는 수어 단어를 위한 동영상이 위치한다. 다시 그 밑에 용례를 위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용례는 영어 번역문과 그것의 주석이 표기되어 수어의 문장 구조를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주석은 하이퍼링크 처리하여 사전의 참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영어 번역문 : I got into the car and went home.

주석 표기 문장 : me in car go home

핀란드 웹 수어사전(<http://suvi.viittomat.net>)은 비교적 용례를 풍성하게 제공한다(이준우 외, 2016: 81). 수어 단어의 의미가 하나의 음성언어 주석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음성언어 단어로 나열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수어 단어의 의미 설명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각 예문은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수어 문장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주석 표기는 되어있지 않다. 표제어의 의미 표기나 복수의 예문 제공 등을 통하여 수어와 음성언어의 관계가 1대 1의 관계가 아닌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 웹 수어사전(<https://en.gebarencentrum.nl>)은 네덜란드수어와 네덜란드어식수어 두 가지 버전으로 예문을 제공한다(이준우 외, 2016: 113). 한국수어사전 편찬에서도 이를 활용한다면 학습자가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를 한국수어로 착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수지 한국어가 한국수어와 다름을 인식하여 이를 구분할 있도록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영국수어/영어사전(1992)의 용례는 각 의미 설명 다음에 이태릭체로 표시하였다. 예문들은 전형적인 패턴,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었고 가능한 한 실제 언어 맥락에서 가져왔다. 예문들을 영어로 제시하였지만 설명은 영국수어 단어들과 영어 단어에 적용 가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선정했다.

한국수어사전에서 한국수어 어휘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를 함께 제공하여 해당 어휘의 정확한 의미뿐만 아니라 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3) 문법정보

사전에서의 문법정보는 해당 단어의 활용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정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그 단어를 문장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없다. 수어 어휘의 문법적 정보는 수어 고유의 문법적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음성-청각적 언어인 한국어와 다른 시각-수지적 언어의 특징인 3차원적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일치 동사, 위치와 방향 정보, 분류사, 비수지 신호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문법적 정보는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복잡한 언어학적 전문용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 수어사전들에서 제공하는 문법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어 어휘의 방향성이다. 수어 단어가 형태를 수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방향과 위치를 바꾼다면 그 정보를 표시한다(Johnston, 2003: 460). 방향이 있는 단어는 끝에 방향이 있는 단어, 시작에 방향이 있는 단어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유사하게 영국수어/영어사전(1992)에는 수동의 방향이 의미와 대응하여 맥락에서 바뀌는 방향 동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I gave you the spanner'에서의 'GIVE'와 'You gave me the spanner'에서의 'GIVE'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전 이용자는 수동 변화의 중요성에 주의해야 할 것을 안내 받는다.

둘째, 품사 정보이다. 수어 단어가 전형적으로 기능하는 하나 이상의 품사를 표시한다. 호주수어사전(1998)에서 제시된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의문사, 지시, 감탄사이다.

셋째, 비수지 자질이다. 영국수어/영어사전(1992)에서 비수지 자질이 명시된 수어 단어의 경우는 비수지 자질이 필수적인 경우이다. 이 사전은 수어 단어의 산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영국수어의 문법과 어휘에서 중요한 비수지 자질에 대한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사진으로는 비수지 자질을 포착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사전에서 비수지 자질을 기술한 칸을 확인해야 한다.

국외 수어사전들에서 웹사전의 경우는 사전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어려운 언어학적 용어들을 가급적 피하고 수어의 문법적 특징을 드러내는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간단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한국수어사전에서 문법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수어사전의 발전은 그 해당 사회 내의 수어의 위상 및 농사회에 대한 인식발전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한국수어 관련 사전 편찬은 표준수화사전(1982)을 시작하여 한국수화사전(2005b)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2017)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어에서 한국수어로의 검색만 가능했던 사전에서 한국수어에서 한국어로의 검색이 가능한 사전으로 발전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제까지의 사전이 비로소 한국수어

-한국어 사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는 독립된 자연언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수어사전의 편찬 방향을 표제어의 문제와 사전적 정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국어 중심적 사고와 배경에서 수행되었던 표제어 수집 및 선정 작업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수어 중심적 사고와 배경에서 수어 어휘를 수집하고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이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된다고 본다. 전국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얻은 지역적 변이형들을 포함하여 전체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를 충실히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수어사전 편찬을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시의 적절하게도 2015년 ‘한국수어의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사업을 통해 서울 지역의 농인 30쌍을 대상으로 90시간 분량의 언어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중 13시간 분량을 기본 전사를 실시하였다(원성욱 외, 2015). 위 구축 사업은 서울 지역에 한정하여 언어자료를 수집하였지만 향후에는 각 지역의 수어들을 수집하여 수어사전 편찬에 한국수어 말뭉치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수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인용례 및 가공례는 한국어의 간섭에서 벗어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수어 어휘의 용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자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은 전국 단위의 수어자료 수집이라는 방대한 목표 외에 한국수어사전 편찬 목적에 부합한 구축 계획이 세밀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전에서 표제어의 표기문체이다. 이제까지 한국수어사전에서 표제어는 한국어로 표기되어왔던 것이 많은 혼돈과 선입관을 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표제어가 곧 한국수어 어휘의 의미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표제어는 동영상이나 그림으로 표현된 수어 단어이며 관련된 한국어 단어는 주석(gloss)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한국수어의 표기체계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한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대응하는 한국어 주석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셋째, 사전은 한 언어의 어휘를 총체적으로 등재하고 언어생활의 원칙을 참고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사전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수어 어휘에 대한 적절한 뜻풀이가 제공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수어 어휘에 대응한 한국어 주석이 뜻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국어사전의 역할을 할 뿐 정작 필요한 한국수어사전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뜻풀이와 함께 용례가 제공되기를 제안한다. 사전의 질은 용례의 양과 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만큼 용례는 사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어휘가 지닌 미묘한 의미 영역, 통사적 정보, 화용적 정보 등을 어려운 언어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용례이기 때문이다.

용례의 표기에 있어서 주석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수어의 독특한 통사적 구조를 알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끝으로 수어 고유의 언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문법정보가 제공되기를 제안한다. 음성-청각적 언어인 한국어와 다른 시각-수지적 언어의 특징인 3차원적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위치와 방향 정보, 품사, 비수지 자질 등이 해당된다.

제안된 이런 특징들이 적절히 그리고 충실히 기술되었을 때에 한국수어의 자연 언어로서의 정당성과 한국어로부터 독립된 언어 정체성을 한국 사회 전반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일 (2004). **표준 수화사전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을 위한 공청회.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259-271.
- 김삼찬·이선호 외 36인 (2005a). **한국수화사전**. 형설출판사.
- 김승국 (1983). **수화 사전**. 단국대학교출판부.
- 김승국 (1993). **최신판 표준수화사전**. 오성출판사.
- 손천식, 엄미숙 (2004). **수화 표제어의 뜻풀이와 용례**.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을 위한 공청회.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273-284.
- 조남신 (2015). **한국슬라브문화연구원 슬라브어학총서 1 사전학**. 서울: 한국문화사.
- 원성욱, 이봉원, 홍성은, 이현화, 이은영, 신환희 (2015).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 조사 및 시범 구축**. 국립국어원.
- 이준우, 조준모, 김연신, 남기현, 홍성은, 이미혜, 엄미숙, 변강석, 박진우, 윤을로, 장모아, 강미영, 박종미, 송미연, 이한나, 명혜진, 박아름 (2016).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 표준수화사전편찬위원회 (1992). **표준수화사전**. 금옥학술문화재단.
- 한국재활복지대학 (2008).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용 한국어-수화 동영상 사전 개발**. 2008년 선정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토대연구)사업 결과보고서.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편 (2003). **한국수화 어원사전**. 서울: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편 (2005b). **한국수화사전**. 서울: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 Brien, D. (1992). *Dictionary of British Sign Language/English*. London: Faber and Faber.
- Johnston, T. (1998). *Signs of Australia - A New Dictionary of Auslan*. North Rocks, N.S.W. : North Rocks Press.
- Johnston, T. (2003). Language Standardization and Signed Language Dictionaries, *Sign Language Studies*, 3(4), 341-468.

- McKee, R., & McKee, D. (2013). Making an Online Dictionary of New Zealand Sign Language. *Lexikos*, 23, 500–531.
- Zwitsersloot, I. (2010). Sign Language Lexicography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a Recently Published Dictionary of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3(4), 443–476.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signhand/hand/main.do>)
- 네덜란드 웹 수어사전 (<https://en.gebarencentrum.nl>)
- 뉴질랜드 웹 수어사전 (<http://nzsl.vuw.ac.nz>)
- 덴마크 웹 수어사전 (<http://www.tegnsprog.dk>)
- 영국수어용어집 (<http://www.ssc.education.ed.ac.uk>)
- 핀란드 웹 수어사전 (<http://suvi.viittomat.net>)
- 호주수어 사인 뱅크 (<http://www.auslan.org.au>)
-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어-수화사전 (<http://support.knuw.ac.kr/signdic>)

A Proposal on Developmental Direction for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Lee, Jun-Woo

Kangnam University

Nam, Ki-Hyun

Kangnam University

Cho, Jun-Mo

Handong Glob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futur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This proposal, when followed, will help the dictionary capture features of Korean Sign Language as a natural language more adequately. The proposal deals with two major aspects of sign language dictionaries: vocabulary items and lexical information. First, we propose that an appropriate change take place in the ways in which sign language vocabularies are collected, selected and represented. This change involves moving from Korean-centeredness to Korean Sign Language-centeredness in the approach to dictionary making at large. This change also involves a proper recognition of the gloss of each vocabulary entry as a mere reference to the entry. Secondly, we propose that lexical information properly include semantic, syntactic and pragmatic information. These lexical information can be effectively provided not only by definition statements but also well thought-out example sentences. Syntactic information, in particular, must address the grammatical features unique to a sign language. These unique features include category information, locational and directional information and non-manual features. In order for us to engage in an adequate collection of these unique features, a corpus-based data collection is a must. If and when these proposals are implemented thoroughly and faithfully, the future sign language dictionary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solidifying the identity of Korean Sign Language as a natural language independent from Korean.

Key Words :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vocabulary items,
lexical information, definition statements, example sentences

논문 접수: 2018. 02. 07 심사 시작: 2018. 02. 07 게재 확정: 2018. 03. 22